

공군

2009.04

www.airforce.mil.kr Vol.370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봄에는 공군으로 놀러와!

창군 60주년 특집 3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1-최용덕 장군

이등병이 쏜대
선임만한 후임 없다!

나무 1 지리산에서



■ 시: 신경림

1935년 충북 충주 출생. 1956년 「문학예술」로 등단. 시집 「농무」, 「새재」, 「길」 등이 있으며, 만해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이산문학상 등을 수상함.

■ 시 해설

사월에는 식목일이 있고 한식도 그 무렵에 있습니다. 산에 가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산에 가지거든 나무 한 그루에서도 삶의 지혜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제 치레하느라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다가 뽑히거나 베인다고 합니다. 한군데쯤 부러졌거나 못나고 불품없이 자란 나무에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시인 도종환



CONTENTS

2009.04

www.airforce.mil.kr Vol.370



표지설명 :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 견학온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표지사진 : 사진작가 김윤혜

공군 April 2009 No.370

발행일자 | 2009년 4월 9일(통권 제370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95, 042-552-629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정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생각하는 그림 _ 비발디의 지혜
- 06 기획특집 _ 봄에는 공군으로 놀러와
- 12 World-Wide Vision _ 공군 UFC
- 15 HOT CLIP! _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하늘로 비상하는 공사 57기
- 16 At a Glance _ The End, Another Star! 공사 졸업식
- 18 이등병이 쓴대! _ 선임만한 후임 없다!
- 20 참모총장 스케치
- 22 공군은 지금
- 24 부대동정 _ "10시 15분 현재 기지방호작전 '비상' 발령"
_ 군수사,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기는 첨단조명 인기
- 26 [창군 60주년 특집 3] _ 4월의 공군역사
_ 다시 읽는 「공군」
_ 만화로 보는 공군 상징인물 1 - 최용덕 장군 -
_ 공군의 역대 기종을 알아보다 ㉓
- 36 e-Sports, <ACE> _ 공군에이스의 위너스 리그
- 40 Bird-Alert! _ 해미천의 귀염둥이, 노랑부리저어새
- 43 Beauty 바이러스 _ 군인도 원한다! 눈부신 하얀 피부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흥미진진 합체변신 영단어
- 48 책마음 _ 제주 걷기 여행
- 49 PREVIEW _ 4월의 문화행사
- 50 장동하의 décalcomanie _ 어느 휴게소에서 생긴 일
- 52 전재인의 일상차반사 _ 선조들이 전해 준 전통 차 만들기
- 54 우리, 건강합시다 _ 나른한 봄날에 활력을 주는 박쥐자세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월호를 읽고서



비발디의 지혜

그림 김영은

◎ 일일명예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하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자주 흘러나오는 「봄(La primavera)」이라는 클래식 곡으로 유명한 음악가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i; 1678~1741) 어느 날 그가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를 듣고 무대에 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트라디바리(Stradivari, Antonio; 1644~1737)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명품으로 손꼽히는 악기인데 당대의 명연주자가 이와 같은 명기(名器)를 가지고 공연한다는 소식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공연일, 비벌디의 연주를 듣기 위하여 각지에서 찾아 온 관객들로 공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초만원이 되었고 그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등장하자 관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숨을 죽이며 그의 공연을 기다렸던 관객들은 연주가 시작되자 눈을 뜨고서 아름다운 선율에 도취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역시 최고의 음악가와 훌륭한 악기의 만남은 다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비벌디가 전하는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비벌디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관객들은 무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비벌디는 바이올린을 높이 쳐켜들었다가 무대 바닥에 함겼 내리쳤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거듭하더니 결국 바이올린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관객들은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부수 버리는 비벌디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내더니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의 바이올린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것이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직접 겪어보지도 않은 채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첫인상만으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악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고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음악은 좋은 악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비벌디의 지체를 보면서 곁에 있는 동료나 이웃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봄에는 공군으로 놀러와!



자료제공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 편집실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계절, 여기저기서 노란 개나리가 들판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겨우내 따스한 아랫목과 꽃샘 추위의 두꺼운 외투 속에서 잔뜩 움츠려 지냈던 이들이여 이제 기지개를 펼 시간이다. 월간 「공군」에서는 창군 60주년을 맞은 올해 공군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그리고 에어파크 등 견학 및 봄나들이에 안성맞춤인 공군 관련 장소들을 추천한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밭에 앉아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여유로움을 공군 관련 장소에서 느껴보자.

공군의 역사는 모두 여기에! 공군박물관

공군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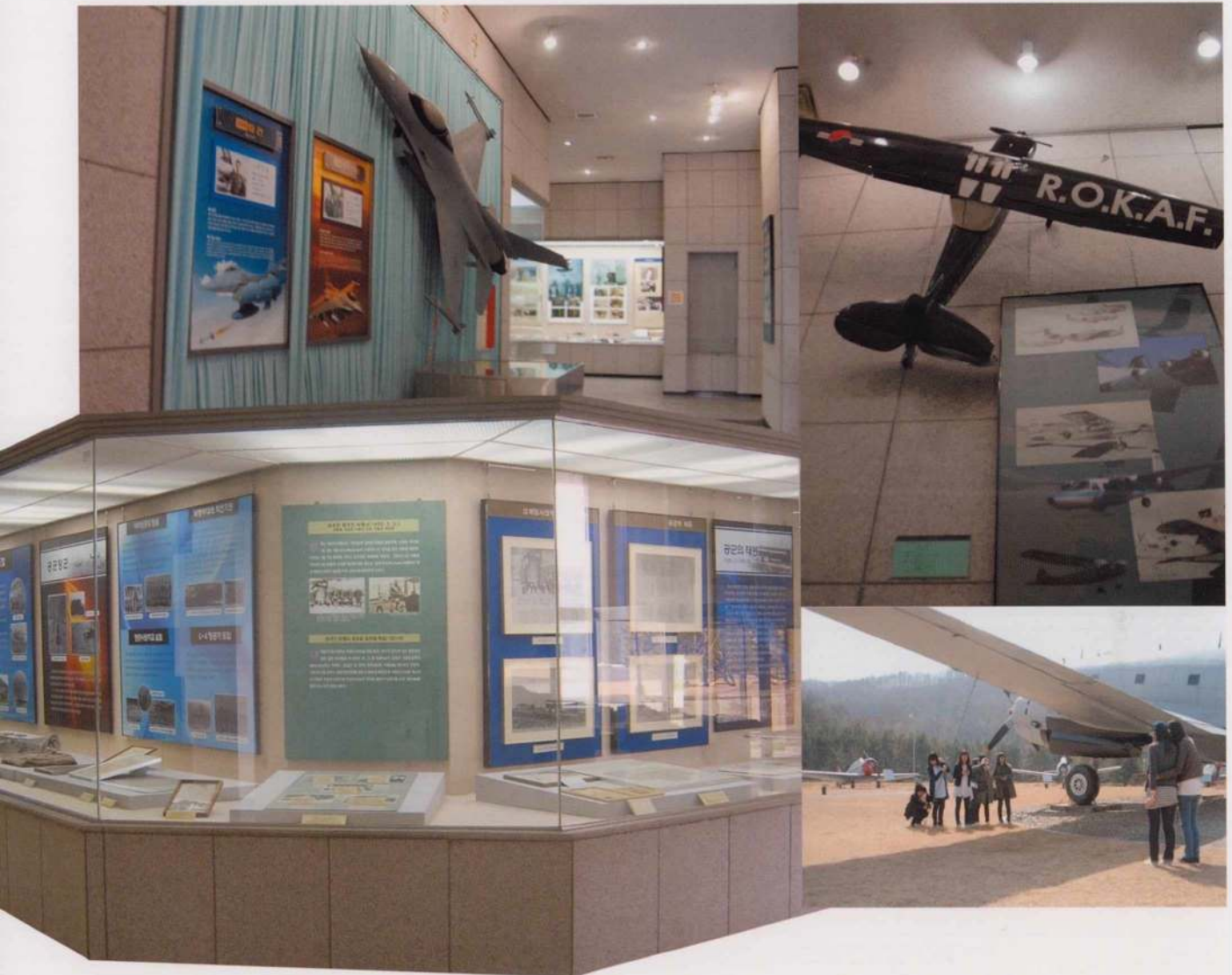
현 공군박물관은 1979년 3월 22일 공군사관학교 구 대방동 캠퍼스의 660m²여 평의 단층 건물에서 개관한 공군 기념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공군사관학교와 함께 '85계획'에 의해 1985년 12월 21일 현 성무 기지로 교사를 이전하면서 신축·확장하여 '공군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공군박물관은 공군 및 사관학교 발전사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 전시, 보존, 관리하고 주요 군사기증품과 전적 유물 및 항공무기체계 등을 군사문화재로 관리하며 이를 공개·전시함으로써 사관생도 및 장병에게 공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시켜 왔다. 또한 공군박물관은 현재 연간 수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문하는 공군의 대표적인 홍보 시설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충청북도 내 박물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공군박물관의 전시 현황

공군박물관은 3,400m²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서 전시관, 영화관, 특별전시실, 자료열람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 및 공군관련 자료와 유물 1천200여 점을 전시 중이다.

1층 공군역사관은 공군의 태동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태동기관, 창설기관, 6·25 한국전쟁관, 현대관, 대간첩 및 해외참전관, 생도생활관, 역대 참모총장관 등으로 구분하여 공군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다. 240석 규모의 영화관에서는 관람객들이 공군과 사관학교 홍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 전시실은 공군과 항공에 대한 특정 주제를 선정 소개하는 곳으로 현재 중이비행기 특별 수집전을 개최하고 있다.



2층 공사역사관은 사관학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관생도들의 복장 변천과 생활 발전상, 역대 졸업식 사진·임관식 장면, 삼사 체전, 세계항공기 발달사, 조선시대 비차 등을 특별 전시, 다채로운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야외 항공기전시장에는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국내 제작 1호 항공기 '부활호', 공군이 최초로 보유했던 항공기인 L-4, L-5를 비롯하여 한국 전쟁에서 활약한 F-51 무스탕, F-4E 팬텀, F-5A/B 타이거 등 총 28종 33대의 실물 항공기를 전시하여 공군의 항공기 발달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관람하는 방법 & 찾아오는 길

가. 접수 및 문의

- 1) 단체관람 접수 및 안내문의 : 정훈공보실 ☎ (043) 290-6091~2
- 2) 개인관람 안내문의 : 공군박물관 ☎ (043) 290-6071~5

나. 개관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6:30,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 09:00~16:30, 수요일 휴관



도심에서 찾은 하늘의 꿈 에어파크

에어파크는 지난해 5월 5일 문을 열었다. 그 자리는 1958년부터 1985년 사이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훈련을 받았던 터로서 1986년 5월 5일 보라매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그 자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퇴역 항공기 8대를 공원 한 편에 전시하였다.

에어파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란 병아리 색의 유니폼을 입은 유치원생들과는 연세 지긋하신 장년층의 모습, 점심을 먹고 산책 나온 주변의 회사원들과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바로 에어파크의 주 고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라매공원에는 각종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동작구민회관, 청소년연맹,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이 함께 있고 맨발공원, X-game장, 암벽등반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공군 항공기 8대가 에어파크에 입주하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실물항공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흥미진진한 놀이터고, 가족들에게 좋은 산책코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공군의 역대 항공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일도 흔하다.



찾아가는 길

♣ 버스

- 보라매공원 동문입구 : 보라매공원, 롯데관악점 하차
5(동작), 5011, 5516, 5523, 5524, 5525, 5526, 5529, 5535, 5612, 5613, 5614, 6511, 6513, 6514, 152, 461, 504
- 보라매공원 서문입구 : 보라매공원 하차
5(동작), 5531, 5533, 5534, 5536, 5623, 150, 500, 505

♣ 지하철

- 서문방향 :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500미터 도보로 10분
- 남문방향 :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 문창초등학교 방향으로 340미터 도보로 8분



♣ 승용차

- 시내에서 이용시
대방로 대방역 지하차도를 지나 대림동방향 보라매공원 서문 유료주차장 이용
- 시외에서 이용시
시흥대로에서 대방로 진입 후 보라매공원 유료주차장 이용
- 주차장 이용
이용시간 : 09:00~22:00, 이용료 : 10분당 200원



▶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발자취!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 과학의 발전은 한 나라의 종합적 국력이며 선진국으로의 척도가 된다. 항공우주박물관은 6·25전쟁과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21세기 첨단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5년 서울 여의도 종합안보전시장에 있던 2,200여 점의 전시품을 바탕으로 하여 2002년 8월 28일 개관하였다.

항공우주박물관에 가면...

6·25전쟁 당시의 군용품도 전시하는 박물관은 크게 항공우주관과 자유수호관, 야외전시장으로 나뉜다. 항공우주관 1층에는 항공산업의 발달사, 2층에는 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한 자료 등으로 꾸며져 있다. 자유수호관은 주로 6·25전쟁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이 실제로 탔던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항공우주관은 항공우주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46개의 패널을 통해 항공 발달사, 항공기 동체의 구조, 인공위성 및 로켓의 비행원리 등을 쉽게 설명해 준다.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에 성공한 미국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와 다목적 위성 아리랑 1호 등 100여 점이 넘는 축소 모형도 볼거리다.

자유수호관은 한국전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전시물은 UN 참전국의 총기류, 중공군·북한군의 군용품 등 1,900여 점에 달한다. 특히 북한 김일성이 타던 소련제 리무진 승용차는 가장 귀한 전시물. 1948년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이 승용차는 1950년 10월 국군이 평안북도에서 노획한 것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82년 되찾아왔다.

야외전시장은 B-29 중폭격기 등 한국전쟁 참전 항공기 18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항공기 2대 등 실물 항공기 20대, 북한군의 주력이던 T-34 등 전차 3대, 화포 3대 등이 전시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 등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것도 다수다. 일부 항공기는 탑승해서 내부도 구경할 수 있다.

그밖에 박물관 내에는 실물항공기, 엔진, 각종 모형물(새·항공기·로켓·인공위성 등) 및 항공발달사·비행원리·항공 우주 부문의 각종 교육자료 등과 6·25전쟁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품과 각종 자료 등을 보관·수집하고 있다.

관람정보 & 찾아오는길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연중무휴(단, 설날/추석 연휴에 한하여 휴관함), 주차비 무료

구분	개인	단체(30명)	비고
어른	₩2,000	₩1,500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1,000	₩800	신분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	₩1,000	₩800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초등학생,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

▶ 관람료 면제 대상

- 군·경,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본인)
-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본인)
-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인 어린이
- 사천시 우대인증, 관광 종사자증 카드 제시자

- KAI 임직원 및 동반한 직계가족
(부·배우자, 부, 모·배우자, 모, 배우자·자)
 -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공무수행자, 학술조사단
 - 관련증서(신분증) 미 소지자는 할인 및 무료입장이 불가
 - 관람료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문의전화 : (055) 851-6565, 주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 예선대회

대상지역	대 회 일	주 관 부 대(예비일)	연 락 처
경남 서부	4. 4(토)	제3훈련비행단(4.5/일)	055) 851-3040~2
강원/영서		제8전투비행단(4.5/일)	033) 730-4030~2
강원/영동		제18전투비행단(4.5/일)	033) 649-2050~2
부산/울산/경남 동부	4. 11(토)	제5전술공수비행단(4.12/일)	051) 979-2050~2
서 울		제15훈련비행단(4.12/일)	031) 720-3050~3
전 북		제38전투비행전대(4.12/일)	063) 470-2090~2
대전/충남 동부	4. 18(토)	공군대학(4.19/일)	042) 878-4135
인천/경기		제10전투비행단(4.19/일)	031) 220-1130~2
경북 북부		제16전투비행단(4.19/일)	054) 650-4050~2
충북 북부	4. 25(토)	제19전투비행단(4.19/일)	043) 849-6050~3
광주/전남		제1전투비행단(4.26/일)	062) 940-1051~3
충북 남부		제17전투비행단(4.26/일)	043) 210-2051~3
충남 서부	5. 2(토)	제20전투비행단(4.26/일)	041) 689-1150~3
대구/경북 남부		제11전투비행단(5.3/일)	053) 989-2190~2
제주	5. 5(화)	제30방공관제단(5.9/토)	064) 794-1193~4

※ 상기 일정은 기상 및 부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 공군 홈페이지(<http://www.airforce.mil.kr>)

◆ 본선대회

- 일자 : 2009년 5월 17일(일) ※ 예비일 : 5월 24일(일)
- 장소 : 공군사관학교

알 림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예선대회가 4월 4일 제3훈련비, 제8전비, 그리고 제18전비를 시작으로 5월 5일까지 한 달 간 열린다. 본선은 5월 17일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며 대회 기간 중에는 기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Sam Allen 대위가 무인항공체계 기초 코스 중 전장 시뮬레이터 조종간을 운용하여 훈련 중이다. Allen 대위는 제563비행대대의 교관이며 랜돌프 공군기지의 UASFC 지휘관이다.

공군 UFC

- 새로운 교육 코스는 공군장병에게 무인항공체계(UAS) 운용의 기초를 가르친다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김원봉

공군은 새로운 UFC 코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UFC라고 해서 글러브를 끼고 테이프를 붙이는 그런 UFC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UFC는 랜돌프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훈련과정의 약자를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공군장병들은 무인항공체계를 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된다. 정식 명칭은 UAS Fundamentals Course. 21일간, 100시간의 시뮬레이터 운용 및 학과 교육을 통하여 무인항공기 비행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게 된다.

“실전시의 지상 전투와 공중전투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장병들에게 제공합니다.” 제563비행훈련대대장 Scott Cardozo 중령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인항공체계교육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장병들은 훈련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합동 전투양상을 익히며 MQ-1 프레데터 또는 MQ-9 리퍼 등의 기능 및 항공기의 능력과 통신설비에 대해 배우게 된다. UFC의 졸업생들은 시뮬레이터의 표적 포드(Targeting Pod)를 사용하여 무인항공체계

조종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때 'UAV(Unmanned Aerial Vehicles)'로 불리기도 했던 무인항공체계는, 지상의 운용 스테이션과 항공기 자체 및 여타 요소가 한 개의 체계를 이루는 것을 감안하여 'UAS(Unmanned Aircraft System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무인항공체계 프로그램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제563비행훈련대대 UFC 비행지휘관인 Tom Moore 대위가 전한다.

프레테터가 발칸 반도에서 1995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무인항공기의 숫자와 종류는 확연히 증가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항공기들은 정찰, 조사 및 정밀 강습 임무 등의 여러 가지 작전에 운용된다. 이러한 작전상의 유연성과 절감된 운용비용은 지상 지휘관들에게 무인항공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무인항공기는 일관성 있는 공중 지원을 제공하고 정찰능력을 통하여 지상 전투 지휘관들에게 획기적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어 개의 유인 전투기를 사용하여 공중 초계활동을 아군 지역 내에서 시행하고, 반복적으로 급유탱커를 이용하며, 기골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일럿 인명 피해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Moore 대위는 설명한다.

무인항공체계의 성장과 함께,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구비한 인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군은 베타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병과에 무관하게 무인항공체계 운용자(Operato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비행 스크리닝과 장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한 후, 그들은 UFC 코스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학사 파일럿 트레이닝(Undergraduate Pilot Training)을 이수한 장교들도 UFC 과정을 수강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운용 경험이 없으며 그다지 많지 않은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코스는 그들에게 가상 전장에서 시뮬레이션된 공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Moore 대위는 말한다.

UFC는 운용자들에게 고성능 게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텍사스 주 랜돌프 공군기지에 Jason Rutz 중위, Brad Dettolacano 중위, Kyle Durch 중위는 표적 포드를 사용하여 항공기 강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사이버 전장에서 다수의 공군 강습 항공기에 노출시킨다. 코스를 설립하는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코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후 이 코스가 설립되기까지는 단 9주의 시간과 미화 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설립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는 교육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UFC는 완전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혁신적 코스로서, 교관들이 관련된 항공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이 운용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

Moore 대위에 의하면, 곧 이 코스는 매년 200명의 장교를 배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훈련 방식은 색다르나,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이 코스의 첫 여성 교육생인 Raquel Dronenburg 소위가 말한다. "공부이기도 하지만, 많은 재미도 느끼고 있어요." 신기한 장비들과 테크놀로지는 교육생

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나, 교육과정이 꼭 재미있고 컴퓨터 게임을 하듯 쉬운 것만은 아니다. 몇 달 이내에, 이 학생들은 네바다 주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프레데터 및 다른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영공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마디로, 공부의 과정은 고되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접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교육생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훈련을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은 이곳을 떠난 후 실전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Cardozo 대령이 말한다.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은 12월 졸업한 첫 번째 졸업생들의 스스로에게 가진 확신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코스를 통하여 교관들이 가르친 기술을 믿으며 오늘날의 공군과 합동 작전에서의 무인항공기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큰 도면 안에서 전투 공역 협조 내의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졸업한 9명의 교

육생 중 한 명인 Brandon Ongra 중위가 말한다. “우리는 한번도 공군의 전투임무에 투입된 적이 없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항공기의 능력을 숙지하고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 코스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UFC가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이죠.” 졸업생인 Brett Matcheck 소위가 말한다. “우리는 현실적 위협, 체계 간 의사소통 및 여러 가지 다른 기본적 정보에 대해 배우며 이는 훈련의 다음단계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인항공기 운용은 오늘날 공군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이며 UFC는 여러 병과의 공군장교들이 무인 체계에 입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이다. 장병들은 팔각 링 안에서 글러브를 끼고 서로를 대면할 필요는 없다. 이 UFC에서는, 공도 없고 1 대 1 매치도 없다. 이 UFC에서는 열정, 배움에 대한 목표의식, 그리고 무인항공체계 운용자라는 타이틀을 쥐고자 하는 욕구만이 요구될 뿐이다. ㉠

MQ-1 프레데터가 네바다 주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touch and go”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하늘로 비상하는 공사 57기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리 편집실

공군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3월 11일에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16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생 자트리 스리다웅(Chatree Sridaung, 25세) 생도를 포함한 158명의 57기 졸업생들은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는 물론 전원 군사학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았다.¹⁾ 또한, 이날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하는 57기 졸업생들은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항공무기정비 등 공군의 다양한 특기를 부여받아 장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졸업 및 임관식에는 최신에 전투기 F-15K,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비롯해 KF-16, F-4, F-5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공중분열을 펼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공군의 각별한 우정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美공군 F-16 4대가 작년에 이어 공사 졸업식 축하비행에 참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조국수호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롭다”며,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조국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이번 57기 졸업식에서는 이소영 소위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방부장관상에 빛나는 진해중 소위는 대표 보라매상도 거머쥐어 2관왕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진 소위는 F-4 전투기조종사로 복무한 아버지 진주원(예)중령의 뒤를 이어 임관해 동문가족이 되었다.

이밖에도 서영민 소위는 공사 2년 선배인 형 서영일 중위에 이어, ‘제1호 성무철인’, 정인식 소위는 해사 졸업 후 중위로 복무 중인 형에 이어 임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선양한 생도 중 공군 핵심가치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실천한 졸업생에게 특별상과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공사 57기 졸업식 수상자 명단

부 문	수상자	전 공	특 기
대통령상	이소영	항공우주공학	조 종
국무총리상	강주완	경영학	조 종
국방부장관상	진해중	국제관계학	조 종
합참의장상	이성훈	군사전략학	조 종
참모총장상	최슬기	항공우주공학	정 보
UN/연합사령관상	김대호	국제관계학	조 종
공사교장상	황성권	산업공학	조 종



1) 공군사관학교는 2005년부터 문·이·공학사를 수여하는 동시에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전원에게 군사학사를 수여하는 양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무섭기만했던 훈육관, 이제는 서로 웃을 수 있다!



신임 소위의 힘찬 포부와 기상을 담은 졸업 선서!



그녀와 조국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The End, Another Start!

공사 졸업식

글: 편집실
 사진: 공군본부 공보과
 중사 김경률
 중사 편보현



“푸른 하늘 높이 하얀 줄을 그리며 지나가는 전투기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종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사 57기 수석졸업의 영예를 차지한 이소영 소위의 수상 소감 中 -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 생도들의 시열!



졸업의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선임만한 후임 없다!

- '멋진 선임되기' 프로젝트 -

이병 이도윤(669기)
제307대대 운영계

상병 서인혁(661기)
제307대대 운영계

글·사진 편집실 취재지원 30단 정훈공보실



〈이등병이 쓴다!〉 제7호점의 주인공은 해발 500m 위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피자가게가 없다 보니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자를 주문해야 했다. 게다가 날씨가 짙어 피자가 식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피자를 기대하고 있을 병사들의 얼굴이 눈에 밟혀 마음이 급해졌다. 부랴부랴 부대에 도착했지만, 피자는 이미 온기를 잃고 식어버렸다. 아쉬운 맘이 묻어나는 찰나, 병사들의 얼굴에 밝게 핀 웃음꽃을 보니 온기가 느껴졌다.

서인혁 상병과 이도윤 이병. 산 위의 작은 부대 운영계를 홀로 지키고 있던 서 상병은 드디어 후임을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얼마나 버르고(?) 있었는지, 잔뜩 얼어서 부대에 도착한 이 이병은 서 상병의 '후임 길들이기' 공세에 속수무책. 이내 마음을 열어버렸다. 곧 후임을 받게 될 예비 선임들은 모두 여기를 주목하시라! 지금부터 '멋진 선임되기' 비법을 공개한다. ㉠

서인혁 상병님께

필승!

이병 이도윤입니다.

서인혁 상병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이병인 제가 표현하기도 힘들고 보답할 방법이 달리 없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매일 서 상병님과 같이 상변한 날이 하루, 이틀 지나고 벌써 두 달 이다 되어갑니다. 매일 바쁜 업무와 쉴새 없이 지내온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대에 올라왔을 때 비쩍 긴장해 있던 저에게 구수한 대구 사투리로 곁을 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선임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머뭇거리는 제게 부대분위기나 제 업무도 알려주시고 훈련병 냄새나는 빨래에 다림질까지 해주시면서 늘 맞선 임이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해주셨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달 간 맞선임이기보다 편안한 형처럼 대해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병이 하기엔 벅찬 업무라며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시고 신병이 생활관 안에만 앉아있으면 갑갑하다며 쏘기 없는 저와 일부러 운동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밤에 야근하며 배가 고플 땀 건똥 한 봉지 건네며 격려해 주신 그 모습이 군 생활에 대한 제 인식과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했던 군 생활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게 어느 덧 의지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편지에 제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긴 어렵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대하는 그날까지 서 상병님을 잘 따르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잊지 않으시던 그 웃음, 힘들 때 힘이 되었던 따뜻한 그 말들 모두 잊지 않고 후임들에게 멋진 선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 이도윤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Hot SKETCH



◎ 기상청장 접견

참모총장은 3월 18일 취임 인사차 공군본부를 방문한 전병성 기상청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기후변화나 기상관측·예보에 대한 요구는 군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기상이 공군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공군과 기상청간 업무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수발전 대토론회

참모총장은 3월 5일 군수사령부에서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및 처·과장, 군수사령관, 군수관리단장 등 군수분야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분야의 효율적인 재조형 추진을 위한 「군수발전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참모총장은 3월 11일 이상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최승기(항공우주공학 전공) 소위에게 영예의 참모총장상을 수여했다.



◎ '09 중앙보안감사 우수자 시상

참모총장은 3월 9일 주간 상황보고회의시 2009년도 공군본부지역 중앙보안감사에 기여한 장교 2명과 보안규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했다.



◎ '08-3차 고등비행 수료식

참모총장은 3월 17일 제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08-3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주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45명의 신임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2년 여의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임 조종사들의 목에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직접 매어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요 지휘관·참모, 내빈 및 수료생 가족들과 함께 신임 조종사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했다.



◎ 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참석

참모총장은 3월 4일 국군 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보름 소위에게 영예의 참모총장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임관장교 89명 중 5명이 공군장교로 임관했다.



◎ 이영하 신임 주레바논 대사 접견

참모총장은 3월 2일 공군본부에서 이영하 신임 주레바논 대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위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을 전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생활 속의 보안” 방포사, 보안 웹진 ‘보안회보’ 발행

방공포병사령부 정보처는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월간 보안 웹진 보안회보를 게재하여 부대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발행된 보안회보는 방공포병 장병들이 인트라넷을 통해 방포사 본부 및 예하부대의 보안소식과 보안실무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보안회보는 매월의 보안목표, 주요 보안활동 사항, 예하단 보안소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령부 및 예하부대의 장병들이 전국에 산재한 방공포병부대의 보안업무현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제16비, 항공간호장교 비행단 견학

3월 18일, 제16비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배속된 신임 비행간호장교 5명(간사 49기)을 대상으로 항공작전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들의 임무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단기간에 비행간호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 함양을 돕기 위해 실제 항공기를 탑승하는 등 강도 높은 공군 적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신임 간호장교들은 216비행대대를 방문하여 조종학생들의 비행훈련에 사용되는 T-59 시뮬레이터(Simulator)에 탑승하여 직접 조종간을 잡고, 이어서 베테랑 조종사들과 같이 실제 T-59 항공기에 동승하여 하이 택시(HIGH TAXI)를 경험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제5비, 256대대 18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수립 행사

256비행대대가 3월 16일 A-5주기장에서 단장님 및 지휘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18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수립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록은 이날 16시경, 편대장 조석호 대위, 황정환 대위와 김희래 대위가 조종한 CN-235가 전술훈련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수립되었다.

이번 기록은 98년 여수 앞바다 대 간첩 작전, 01년 인공강우실험 비행지원, 00년부터 07년까지 3차례에 걸친 일본과 중국 해외공수 임무, 그리고 VIP 특별공수 임무를 비롯한 야간 조난 어선 탐색구조작전 수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수립된 기록이기에 더욱 뜻깊다.



◎ 제8비, 의무항공수송훈련

제8비에서는 3월 20일 격오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1/4분기 항공의무후송 훈련이 있었다. 이번 훈련은 “적 특작군의 공격으로 용문부대에 응급환자 발생(가상환자 12명), 기지 진/출입 도로 완파, 지상이동 불가로 항공의무후송을 실시”라는 가상 상황부여로 용문부대 환자를 제8비 항공의무대대로 후송 및 지상의무 요원에게 환자를 인계하는 훈련이었다. 항공의무대대에서는 환자구호반을 운영 유히실 주기장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항공의무대대로 환자를 이송, 분류하고 응급실 및 입실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훈련이 종료되었다.



2009 April



◎ 제11비, KF-16 Hydrazine 제독 훈련
제11비에서는 3월 17일 KF-16 항공기 Hydrazine 제독 훈련을 실시하였다.



◎ 제15혼비, 신분단체 기지 환경미화
3월 11일, 제15혼비에서는 준사관단과 군무원단, 부사관단, 으뜸병사 등 각 신분단체 임원 100여 명이 기지 전역에서 봄맞이 환경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제3혼비, 사랑의 의료 봉사
3월 18일 지역민과 함께해 온 제3혼비 항공의무전대는 부대 인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를 찾아가 마을 주민들의

환절기 건강상태를 돌보며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자가 많아 한방과에 가장 많은 환자가 붓었으며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부서관 및 의무병들이 노인들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 제18비, 단 태권도 대회 개최

제18비에서는 3월 6일 단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 대비와 장병 전투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12개 대대가 페더급 등 8개 체급에 참가하여, 평소와 같고 닦은 기량을 충실히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다. 최종 우승은 헌병대대, 그리고 우수지도자는 야대 중사 안성준에게 돌아갔다.



◎ 제20비, 덕산 자활농장 자원봉사

제20비 단주임원사실에서는 3월 10일 전 주임원사와 전입신병 약 70여명이 덕산 자활농장에서 버섯 재배용 참나무 토막과 개울의 작은 돌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베풀었다.

“10시 15분 현재 기지방호작전 ‘비상’ 발령”

-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제203기 부사관 후보생 교육검열
- 상황부여(Case Study)를 통해 실제전투 상황에서의 조치능력 배양

글·사진 교육사 정훈공보실



1

“10시 15분 현재 기지방호작전 ‘비상’ 발령.

후문지역에서 적과 교전 중. 경비소대, 기동분대는 전투지역으로 이동하고, 전 장병은 비표를 착용할 것.”



2

방 송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사관 후보생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킨드 미사일 폭격 소리 등, 3월 24일 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된 제203기 부사관 후보생 교육검열은 검열시작과 함께 실제 전투 현장 같은 분위기로 돌변했다.

스킨드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후보생들은 신속히 방독면을 착용하고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화학탄이 떨어지자 재난통제반이 출동하여 피해지역을 탐측하고 제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적을 맡은 전술학 교관들이 연막탄에 숨어 여기저기서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공포탄과 모의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날 제203기 부사관 후보생 교육검열은 전술학, 화생방, 화기학 등 각 과목별로 제대단위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과거의 검열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기지방호 시나리오를 구성, 부사관 후보생들이 기지방호 상황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 배운 모든 전투훈련 내용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행하였다.



3

또한, 기지방호 상황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후보생들의 대응절차를 각 과목별 전문분야 검열관이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교/부사관 후보생 간부화단계에서 시행 중인 실제상황하 행동화 교육의 개선 사항을 도출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검열을 준비한 평가실장 김영표 대령(진)은 “개선된 교육검열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부여(Case Study)를 통해 실제전투 상황에서의 조치능력을 평가한 것”이라며 “사례 중심의 행동화 교육평가를 통하여 야전에서 임무수행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⑦



4

- 1 화학탄 피폭에 의해 감염된 동료를 의무조가 투입되어 응급처치하고 이를 평가하는 평가관
- 2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응급처치하는 모습
- 3 적과의 교전 후 사살한 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병
- 4 기지를 경계하는 외곽방어대

군수사,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기는 **첨단조명** 인기

- 실내조명 LED 교체로 획기적 예산 절감
- 효율높은 LED램프, 백열등에 비해 수명 100배, 소비전력 1/15

글·사진 군수사 정훈공보실

군수사 창정비 현장의 백열등 조명이 빠른 속도로 LED램프로 교체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열등 교체 작업에 의해 공군 창정비 현장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군수사는 지난 2월 창정비 현장에 설치할 LED램프 구입을 위해 조명 설비업체를 선정, 물품 조달을 추진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작업현장의 백열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60와트 백열등에 비해 15분의 1 수준인 4와트의 소비전력, 수명은 100배 이상인 10만 시간에 달하는 LED램프는 백열등에 비해 40배 가까이 비싼 초기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4년 내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3정보통신정비창은 최근 작업장 내의 80여 개 작업등을 LED램프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13,245k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 10년 내에 1천2백만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1일 8시간 근무 기준). 83정보통신정비창의 김정화 하사는 "LED램프는 기존에 사용하던 백열등보다 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오랜 작업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의 피로도가 적다"라고 말하고 "LED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이 적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경제성 못지않은 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창정비 현장의 작업등이 LED램프로 교체되고 있지만, 전체 소요를 놓고 볼 때는 아직 미미한 수준. 군수사령부는 83정보통신정비창을 필두로 LED램프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추진 가능한 교체 수준은 전체 소요 가운데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군수사는 탄소 발생량의 감소와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백열등 교체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



- 1 실내조명 업그레이드 군수사 83정보통신정비창 하사 김정화는 최근 교체된 LED램프를 켜고 전장비의 회로망을 점검하고 있다.
- 2 LED조명 너무 좋아요! 적은 발열량과 눈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LED 작업등이 공군 창정비 현장에서 최근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LED조명은 만만치 않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장의 편집실

신축 공군회관 개관(2003년 4월 2일)

현재 공군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공군회관은 1963년 4월에 건립하였던 참모총장 공관이 모체가 되었다. 1982년 6월에 새로이 참모총장 공관을 신축하면서 구(舊) 공관 건물의 활용방법을 모색한 결과 탄생한 것이 공군회관으로 대폭적인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끝에 대지면적 7,319㎡에 본관(연회부), 별관(예식부) 등의 복지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1982년 12월에 정식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설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이용대상자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재경지역의 타군 복지시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낙후한 단점 등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9년 7월에 기존 회관을 철거한 후 동(同)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객실, 예식장,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 현대식 건물로 공군회관의 재건축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회관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잠정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만 2년간에 걸친 건설공사 결과 하늘을 향한 공군의 역동적인 미래상을 투영한 건물로 2003년 4월 2일 새출발의 닳줄을 힘차게 걷어 올렸다. 신축 공군회관은 공군장병의 편안한 안식처이자 재충전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랜드마크(Landmark)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축 공군회관의 모습

교육사령부 창설(1973년 4월 10일)

정에 공군인 양성의 요람 교육사령부는 6·25 전쟁 중 경북 자인에서 1951년 4월에 창설한 제1항공교육대를 모체로 하여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종래 각 단대에서 실시하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합하여 각종 기술하사관 및 일반병의 기본군사훈련을 개시한 제1항공교육대는 1952년 2월 대전으로 이전한 후 동년 7월 1일부터 항공병학교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교육체계의 효율적인 정비가 요청되자 1956년 8월 1일부터 기술학교, 통신전자학교, 항공병학교를 통합하여 기술교육단을 창설하였으며 사관생도를 제외한 모든 장병들의 기본군사훈련, 일반특기교육, 제반 보수교육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공군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교육사령부는 대전기지일대(탄방동)가 주택과밀지구로서 대전시 도시발전계획에 포함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현대적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자 1988년 11월 1일부터 충절의 고장인 진주로 이전하여 선진정에 공군인 양성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교육사령부 창설식 모습



걸프전 참전 비마부대 해단(1991년 4월 11일)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합병하자 국제사회는 침략자를 응징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국적군 파견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군에서는 C-130H 수송기 5대와 160명의 병력으로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을 창설하여 1991년 2월 19일 아랍에미리트의 알아인기지로 파견하였다.

2월 20일 알아인기지에 도착한 비마부대는 2월 26일부터 공수임무를 시작하여 4월 3일 주(駐)쿠웨이트 한국대사관 직원의 화물공수를 마지막으로 임무를 종료하기까지 총 37일간 323소트에 713.3톤의 화물과 1,405명의 인원을 공수하는 등 다국적군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였다.

비마부대는 걸프전이 조기 종결됨에 따라 4월 10일 국군의료지원단과 함께 서울공항에서 환영식 행사를 가진 후 4월 11일 해단하여 월남전 이후 두 번째의 해외파병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56공수비행단 파병장병을 격려하고 있는 김정렬 초대 공군참모총장



56공수비행단 개선 및 해단식



F-16 1, 2호기 최초도입 환영식

F-16 항공기 최초도입(1986년 4월 12일)

공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도입한 F-16 항공기 1, 2호기가 미국에서 출고식을 마치고 1986년 4월 12일 군산기지에 도착하자 공군은 김인기 참모총장(제17대, 1984.6.5~1987.6.5) 임석하에 'F-16 항공기 최초도입 환영식'을 거행하였다.

공군은 F-16 항공기를 도입함에 따라 전쟁시 공중우세 확보, 야간 및 전천후 작전능력 보강, 북한의 MiG-23 항공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담아 필승보라매(Fighting Falcon)로 명명하였다.

KT-1B 인도네시아 수출 1호기 출하(2003년 4월 25일)

2009년 현재에도 중등비행교육 훈련기로 사용되는 KT-1은 10여 년의 시간과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끝에 개발하여 동급 기종 중 가장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은 우수한 항공기이다.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으며 2003년 4월에는 수출 1호기가 출하되는 경사를 맞이하였다.



KT-1B 항공기 운영을 위해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방한하여 3훈련비행단 교육과정에 입과하였다.



2사관학교 4기 사관생도 졸업식 장면

제2사관학교 해체(1984년 4월 30일)

우수한 중기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하여 조종, 관제, 통신전자, 정비 등 4개 학과에 한 학년 180명을 정원으로 보라매의 날개를 펴기 시작한 제2사관학교는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생도를 모집하였으며 평균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바탕으로 공군의 우수인력 충원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제2사관학교는 1976년 3월 2일 제1기 사관생도의 입교 이래 필승보라매의 교육요람으로서 1천여 명의 장교를 양성하였으나 정부의 단기사관학교 폐지방침에 따라 1984년 4월 30일 공군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였다. ㉞

다시 읽는 「공군」

- 공군인, 공군 in Week, 「공군위클리」 -

☞ 소령 라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2009년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군에 남아 있는 많은 사료(史料)들 중에서 공군인들이 가장 즐겨 찾았고, 널리 알려졌던, 그리고 공군인의 생각들을 잘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다시 읽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다. 이름하여 「다시 읽는 공군」! 그 첫 번째 순서로 고른 것은 「공군위클리」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953년 1월, 기존의 「에어맨스 위클리」를 대신하여 새롭게 창간했던 「공군위클리」는 지금과 같은 정보의 폭발적인 흐름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1953년 당시의 공군인들에게 전황을 포함한 각종 군내외의 소식을 전하고, 영어와 한글, 그리고 군관련 상식을 담은 종합지의 성격을 지닌 주간신문이었다(심지어 카툰과 유머까지 있다). 그 방대한 자료를 함께 향유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눈에 띄는 기사 몇 개를 통해 당시 우리 공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전란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갔던 공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자.

Information & Education을 위하여!

우측 기사는 「공군위클리」의 발행인이었던 서임수(1920년생, 사후11기, 정훈병과) 중령의 창간사다. 이 글을 보면 「공군위클리」를 발행한 목적은 단순명쾌했다. 공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면의 구성도 대부분 전황을 포함한 각종 시사안보 뉴스와 학습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면서 초기에 단순하게 국내의 통신사의 뉴스를 그대로 싣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고문과 직접 취재기사들도 다루고, 단순 텍스트와 만화 위주의 편집형식도 다양한 사진과 나름 복잡한 일러스트를 가미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공군위클리」를 통해 장병들이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전력이 향상되기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군내 매체들이 교육적인 측면보다 대내외 공감대 형성이나 장병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만큼 장병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 간행물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속내까지 잘 살펴보면 「공군위클리」나 지금의 월간 「공군」 모두 정보전달과 교육이라는 핵심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원본의 훼손으로 글자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모로 표기하였음>

창간호, 호주 공군장관에 주목하다.

창간사를 포함해서 창간호 1면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의 수는 모두 14개다. 가장 앞에 오른 기사는 NATO를 모델로 한 아시아 방위기구(亞洲防禦機構)의 태동을 다룬 “주간시사” 코너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1면의 전체 기사들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타이틀로 지면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는 의외로 “한국공군을 증강”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당시 호주 해 공군장관을 지냈던 William McMahon의 귀국 성명서의 내용을 다룬 것이다. 물론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당시 UN연합국 중 한 나라의 장관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창간호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 매우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 냉전체제로 전이되는 과정의 한복판에 선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적은 것도 아니었을텐데 말이다. 잘 살펴보면 위 기사의 우측 하단에 있는,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혈맹 미국의 해군장관의 기사보다 더 비중있게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1

덕장(德將)
최용덕 장군



최용덕
(1898~1969)

최용덕 장군은 우리나라 공군 창설 멤버이기도 하지만
중국 공군의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들이 중화민국
군인이 되는 것은, 중국이 일본과 싸울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용덕 장군 역시 공군지휘부 참모장 직을
수행하는 중



忠誠!



딸깍



빅그리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지사령관 등으로 활약
했습니다.

바쁘다
바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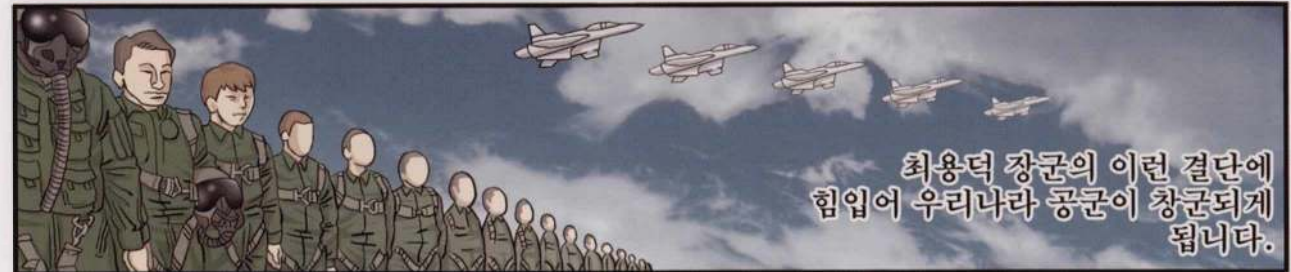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해방이 되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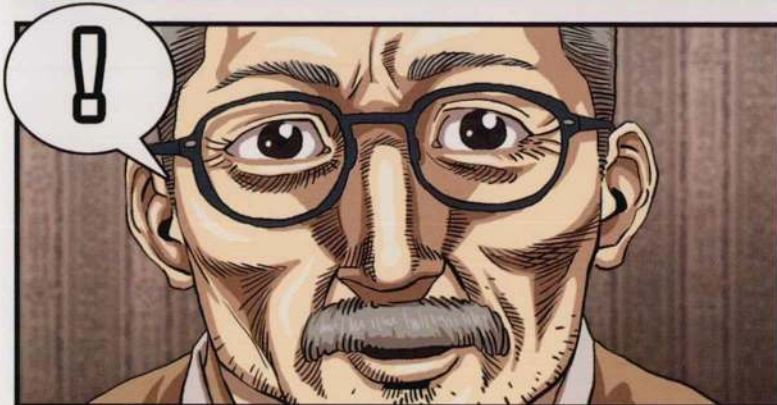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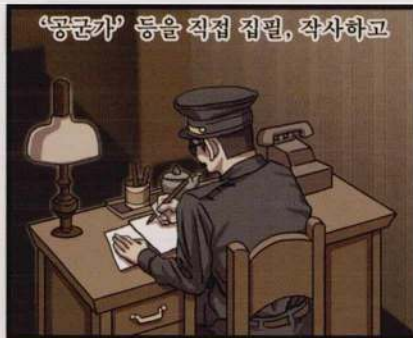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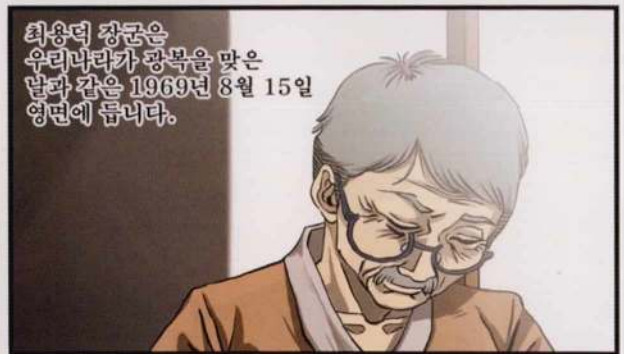
공군 창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십시오.

즉, 장성급의 경력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식 군사훈련을
이수하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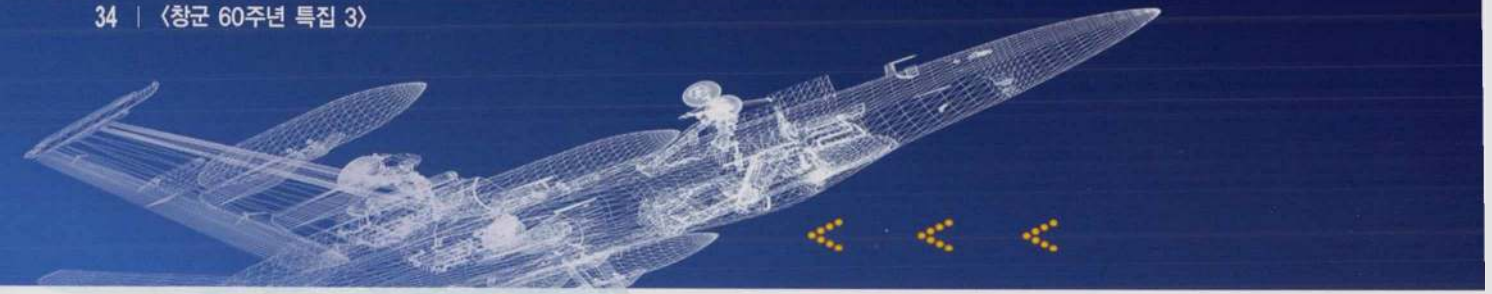






〈편집자주〉 최용덕 장군은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을 맞으셨으나 위 장면은 극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구적인 부분이 가미되었다.

만화 : TEAM SIXTA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3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1



2



3



4



5



6



7

L-4(연락기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항공기)

L-4는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항공기 10대 중 1대로 조종석이 전후방으로 된 2인승 연락용 경항공기이다.

1948년 5월 5일 통위부(국방부) 직할로 태동한 항공부대는 동년 7월 27일 항공기지부대로 칭하였으나 미군으로부터 L-4 항공기 10대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변변한 항공기 한 대 없는 형편이었다.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L-4 항공기는 우리 기술진에 의해 조립을 완료하였고 단 한 번의 시승만으로 우리 조종사들은 L-4 항공기 10대로 동시 이·착륙과 편대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L-4 항공기를 인수한 지 불과 이틀 후인 9월 15일에는 태극표식이 선명한 L-4 항공기 10대가 편대군을 이루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상공에서 전시비행을 실시하였는데 최용덕 장군은 이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가 어려서 망명하여, 남의 나라 군문에서 몽매에도 잊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내 나라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의 상관에게 경례를 하며, 내 나라 부하에게 경례를 받아 보는 것이고,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하던 염원을 오늘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L-4 항공기는 초창기의 대한민국 공군조종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제주도 공비 토벌작전 및 여수·순천 반란 진압작전에서 공중지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초에는 후방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투척하여 이를 예측 못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대한민국 공군사에 길이 빛날 신화를 창조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S-2A 해상초계기 도입(1970년 9월 16일)

일명 바다의 추적자라 불리는 S-2A 트래커(Tracker) 항공기는 우리 군이 최초로 운용한 해상초계기로서 P-3C 오라이언을 도입함에 따라 해군이 2001년까지 일선에서 퇴역시켰으나 원적지는 공군이였다. 우리 공군은 1970년 9월 16일 김포기지에서 S-2A 해상초계기 3대를 군원으로 인수하여 제5공수비행단(현 제5전술공수비행단) 예하 제9해상초계비행대에 배치하였으며 1971년 12월 1일 5대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총 8대를 운용하게 되면서 제59해상초계비행대대로 증편하였다.

미국의 Grumman사에서 제작한 S-2A 해상초계기는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조작사 등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어뢰, 폭뢰, 로켓탄 등 다양한 공격무기와 함께 소노부이를 탑재하여 잠수함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술항공기로서 이를 우리 공군이 운용하게 된 이유는 도입 당시까지만 해도 해군에 항공기반이 전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군은 1972년부터 조종사 및 정비요원을 제5공수비행단에 파견하여 합동군무를 실시케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항공기의 운용능력과 정비기반을 획득함에 따라 1976년 1월 S-2A 해상초계기의 호적은 해군으로 이관되었다. ㉠

- ① 1948년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여의도기지에서 인수하였으며, 이날부터 비행부대는 여의도기지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 ②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 세종로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에서 L-4 항공기가 공중분열식을 실시하였다.
- ③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출격하는 L-4 항공기 편대
- ④ 1952년도에 사천기지에서 L-4 항공기 비행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 모습
- ⑤ 1953년 사천기지에서 조종사들이 L-4 항공기 지상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⑥ 여의도기지에서 L-4 연락기 인수 및 미군으로부터의 정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⑦ 우리 정비사들이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
- ⑧ 서울상공을 비행 중인 L-4 연락기들
- ⑨ 반란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한 조종사들이 광주기지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하단의 3명, 좌측이 비행부대장 김정렬 대위)
- ⑩ 1970년 9월 16일 최초로 도입한 S-2A 해상초계기를 1976년 1월 7일부로 해군에 모두 이관하였다. 사진은 공군이 해군에 이관한 S-2A 해상초계기 모습
- ㉠ S-2A에 무장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
- ⑫ 활주로에 세워진 S-2A의 모습
- ⑬ S-2A를 정비하는 모습
- ⑭ S-2A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공군에이스의 위너스 리그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공군에이스는 거기에 없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시즌 3라운드, 위너스 리그 (winner's league)는 말 그대로 승자를 위한 경기방식이었다. 이긴 선수는 다음 선수와 또 한 번의 경기를, 즉 이길 수 있는 기회를 4번까지 연속해서 갖게 되는 이른바 '올킬(All Kill)'이 가능한 경기. 필자를 비롯한 공군에이스의 팬들은 그저 경기 방식이 바뀌는 것만으로, '혹시나 위너스 리그에 선?'이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공군웹진 '공감'의 취재차 한동욱 선수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Q 3라운드 들어 위너스 리그 방식이 도입됐다. 선수 층이 얇은 공군에이스에 약인가, 독인가?

A 독이다. 위너스 리그에서는 어떤 맵에서 어떤 상대를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개 맵에서 3개 종족 모두를 상대로 연습해야 한다.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처럼 선수가 적을수록 부담이 크다. 연습을 거의 못한 맵에 나간 적도 많다. 지더라도 할 거 다 해보고 지면 괜찮은데, 시간 때문에 연습이 부족해서 어이없이 지게 되면 팬들도 실망하겠지만 나 스스로도 화가 난다.

프로게이머들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필자는 스타크래프트를 10년 이상 즐겨왔고, 또 나름대로 아마추어로서 어느 정도의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맵을 꼽으라면 헌터, 로스트템플, 루나, 파이썬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얼마 전 배틀넷에 갔다가 이번 위너스 리그의 공식 맵이었던 '메두사'가 있길래 그 방에 들어갔다가 상대방의 빠른 러커 견제에 아무 것도 못해보고 패하고 말았다. 맵을 모르면 70% 이상 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필자도 알고 있었다. 특히나 상대방이 맵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날빌(날카로운 빌드, 전진 배럭이나 몰래 게이트, 몰래 해처리 등 준비된 의외의 전략을 말합니다.)'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 역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들은 그 모든 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공군에이스의 어떠한 선수라도 맵을 아예 모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보다 수배의 시간을 투자해 몰래 건물을 지을 곳, 움터버를 띄워둘 곳, 터렛을 지을 곳, 무탈 견제를 할 곳을 보다 정확하게 연습해서 경기에 임했을 것이다. 그날의 컨디션과 컨트롤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경기는 초반 빌드가, 마치 바둑의 포석과도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찰이 안 된 상태에서 욕심을 부려 생더블을 가져가는 테란이나 토스를 상대로 9드론이나 12드론에서 선풀을 가져간 저그가 패할 리가 있을까? 이영호(KTF, 테란) 선수나 김택용(SKT, 프로토스)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같은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그러한 초반 빌드상의 불리함을 극복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너스 리그는 승자를 위한 경기방식이었기 때문에 공군에이스는 거기에 없었다. 남들은 다 하는 그 흔한 올킬 한 번 없이 수차례 다른 팀들의 올킬 제물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그나마 오영종 선수나 박정석 선수가 올킬을 막아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다음 리그에서는

하지만 지금까지 공군에이스의 경기를 가장 많이 보아왔고, 그 선수 구성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왔던 필자는 다시 한번 '다음 리그에서는' 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오영종 선수가 이번 프로리그에서 보여주었던 경기력은 '상상이상' 이었다. 그 어떤 선수가 훈련소 갓 마

치고 투입된 팀에서 15승 이상을 올릴 수 있을까? 누군가 그래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주저없이 그분은 '스타를 모르는 분'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스타크래프트를 한낱 컴퓨터 게임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멘탈적이고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민감한 시험' 이다. '신의 한 수' 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창호 9단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면 겁 없는 초단들에게 패하기도 하는 것이 바둑이다. 스타크래프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기' 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바뀐 환경에서 다승 10위 안에 드는 성적을 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실력의 70% 가량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S클래스의 선수가 아니고서는 낼 수 없는 성적이다.

또한 100승을 눈앞에 둔 박정석 선수의 부활이다. 이병시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박정석 선수는 기량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무당스톱을 수차례 선보이며 부족한 병력을 화끈한 영웅기질로 극복해내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종족별로 고르게 강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오영중+박정석이 버티고 있는 프로토스 라인만큼은 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음 리그를 기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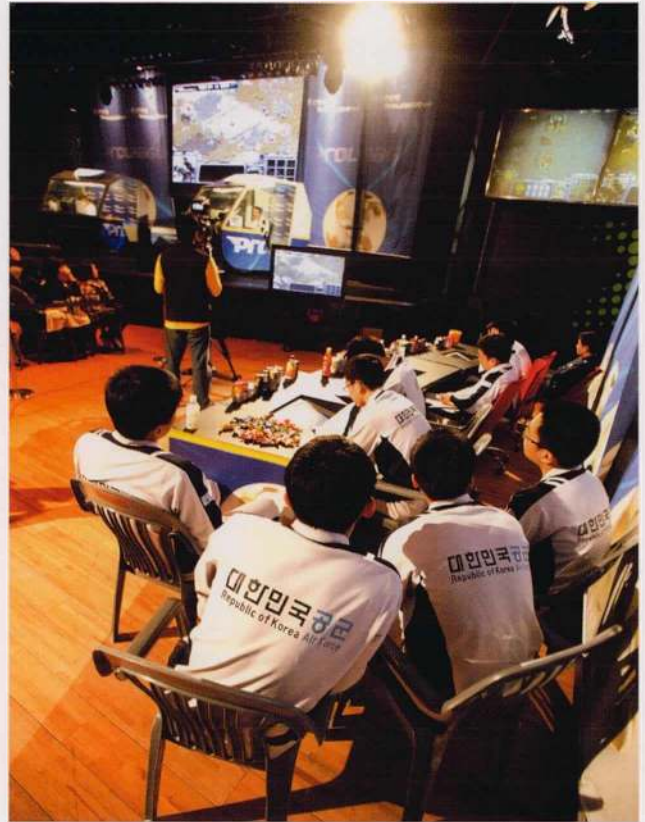
두 번째 이유는 서지훈 선수의 합류다. 이제 훈련소에서 한창 고생하고 있을 서지훈 선수의 합류는 공군에이스 테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군에이스의 창단 시절부터 테란라인을 책임졌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 서 함께했던 최인규, 김선기 선수, 최근의 한동욱 선수까지 그 어떤 선수들도 서지훈 선수와 같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임요환 선수나 한동욱 선수는 우승자 출신으로 당연히 뛰어난 운영능력 역시 겸비하고 있었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힘싸움보다는 상대방의 빈틈을 끊임없이 찌르고, 예상치 못한 기발한 전략들을 통해 승리하는 타입이었지 운영을 좋아하고 물량 싸움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퍼펙트 테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할 게 없게 만드는' 경기를 자주 연출했던 서지훈 선수는 최상급의 운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원팩 윈스타보다는 원팩 더블을 즐기는 성향의 서지훈 선수의 존재는, 초반 '날빌'만 막으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던 상대팀 선수들에게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이며 그런 때 조커로 출전한 한동욱 선수의 빠른 컨트롤과 깜짝 전략도 더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

세 번째는 새로 합류할 선수들에 대한 기대다. 이재훈, 김환중, 김선기 선수의 전역을 대비해 3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한다. 한 번에 3명의 선수가 합류하는 것이 인원이 적은 공군에이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지난 신병 3인방(오영중, 박정석, 한동욱)이 합류했을 때 모두가 느꼈었을 것이다. 어떤 선수가 합류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그리고 신병들의 적응이 늦어지게 될 경우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젊어진 공군에이스를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헛된 기대만은 아닐 것이다.

공군에이스가 해야 할 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이스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임요환 선수나 박정석, 홍진호 선수 같은 인기 있는 프로젝트 이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군에이스만



이 보여줄 수 있는 '공포의 외인구단' 과도 같은 의외의 명경기들이 자주 연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웹진에서 밝혔듯, 점점 스타리그와 경기 수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군에이스 선수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바투(BATOO) 스타리그 8강전에서 팀킬 잔혹사를 보여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들을 연출했던 조일장 vs. 진영수의 경기나 경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역시 팀킬에 성공한 김택용의 경기는 프로리그에서 10경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수준의 경기였다. 송병구와 이제동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났을 잃었던 필자는, 공군에이스의 경기를 보며 났을 잃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생각하며 씩씩했다.

곧 이어질 4강과 결승전에서 더욱 치열한 명경기들이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공군에이스는 완전히 잊히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전략과 컨트롤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야 말로 기나긴 연패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팬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쓴소리도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다음 위너스 리그에는 꼭 공군에이스가 있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을 담아본다. (A)

항공소년단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 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층 02)953-7543/www.yfk.or.kr

해미천의 귀염둥이

노랑부리저어새 (Spoonbill)



우아하게 날고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밥주걱 같은 부리

지난 겨울 천수만지역의 해미천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탐조객들이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보기 위해서 다녀갔다. 특히, 서울에서 초등학교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다녀갔는데, 이곳을 다녀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관찰했던 새들이 노랑부리저어새라고 하였다. 구름처럼 다채로운 광경을 연출하며 찬란하게 군무를 펼치는 가창오리라고 말할 것이란 짐작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가창오리는 주로 해가 질 녘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활동을 하는 특성상 주간 탐조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낮에 쉽게 볼 수 있는 새 중에서 노랑부리저어새가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것 같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물속에 넣고서, 좌우로 저어가며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를 잡아먹을 때는 물론이고 서로 애정을 표현할 때에도 넓적하고 긴 부리를 이용하여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주는 행동을 한다. 부리가 길어서 자신의 머리와 목 부분의 깃털을 아름답게 다듬을 수가 없기에 서로의 깃털을 정리해주는 행동은 자신의 깃털을 깔끔히 관리할 수 있고 암·수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

초등학교 때 성당에서 신부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 두 곳 모두 식사를 할 때 긴 젓가락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지옥에서는 젓가락이 길어서 자기 입으로 음식을 가져오기가 어려워 고생을 한다고 하였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는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먹기 때문에 늘 굶주리며 산다고 하였고, 천국에서는 똑같이 긴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늘 화기에애한 식사시간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 주는 노랑부리저어새의 사랑스런 애정행위를 보면서 '아마 저 새들은 천국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아닐까?' 라는 초딩같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이 새들이 먹이를 찾을 때 낮은 물가에서 이리저리 부리를 저어가면서 걸어 다니는 모습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언제 먹이가 부리에 걸릴지 모르니 부리를 물 속에 집어넣은 채 마치 노를 젓듯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발걸음 또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새의 이름도 저어새라고 붙여졌다고 하며 노랑부리저어새는 부리 끝부분에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노랑부리저어새의 생태

노랑부리저어새는 형태학적으로는 황새목 저어새과 노랑부리저어새속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크기는 백로 종류 중에서 가장 작은 쇠백로보다 약간 크다. 태어난 지 만 4년 지나야 번식이 가능한 어른새가 되며, 수명은 대략 1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번식하며 5월 하순에 2~3개의 알을 낳고, 약 3주 정도 알을 품은 후 부화된다. 태어난 새끼는 40여 일간 부모새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은 후, 번식지 주변의 개펄지역과 무인도를 이동하면서 수천 km 떨어진 월동지로 장거리 여행을 위한 영양섭취를 한다. 이동을 하기 전에 어미새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새끼들에게 비행연습을 시키고 10월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 남쪽지방으로 이동한다.

이 때 비행연습을 게을리 했거나 몸이 약한 새끼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런 도태를 의미한다. 봄이 되어 북쪽으로 떠나는 철새들과는 달리 이곳에서 너무 몸을 살찌워 비대해지거나 다친 새들은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해미천에 남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새들 역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가을까지 건강하게 남아 있는 것들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미천의 겨울철새들의 생활에서 배울 수가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유라시아대륙 전역의 온대지역에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겨울기간동안 월동하기 위해 찾아오며 부리를 제외하고 거의 생태적 특성이 비슷한 저어새는 동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동아시아 특산 조류다.

특히 저어새는 1999년에 중국 동해안의 무인도에서 확인된 1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번식 쌍이 한반도 이북의 무인도서에서만 번식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조류학자들이 1997/1998 월동시즌에 저어새의 최대 월동 지역인 대만과 홍콩의 습지에서 포획하여 인공위성 추적발신기를 부착하였다. 그후 다시 방사한 개체 6마리 가운데 끝까지 추적에 성공한 4마리가 모두 남북한의 해상접경구역인 서해 비무장지대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례는 저어새의 종 보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서해 무인도서와 주변의 습지가 저어새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저어새는 현재 남북한이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남북한이 같이 협력하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조류보호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보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어새의 번식상태 조사를 위해 북한에서는 1997년부터 압록강하구에서 황해남도에 이르는 서해 무인도서를 조사하



해미천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어린 저어새



해미천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노랑부리저어새 커플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 주는 노랑부리저어새



오리들과 어울려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해미천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이곳에서 월동을 하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기러기 무리들



해미천을 찾아오는 노랑부리저어새

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확인되었던 번식지인 석도의 저어새조사가 199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월동지인 제주도 성산저수지와 하도리저수지에서는 매년 20여 마리가 관찰되며 천수만에서도 가끔 5~6마리가 관찰된다.

저어새를 지칭하는 명칭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어새, 북한에서는 노랑부리저어새를 저어새라 부르며, 우리가 저어새라고 부르는 새는 검은뺨저어새 또는 검은뺨저어새라고 한다.

저어새를 영어로 Black-faced Spoonbill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북한에서 부르는 검은뺨저어새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똑같은 새를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랑부리저어새의 퇴치

노랑부리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조류로, 보호를 해야 할 귀중한 우리 인류의 자산이다. 이런 천연기념물 조

류는 기지 내에 진입하게 되면 살상을 금하고 기지 밖으로 추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자칫 살상을 하면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멸종 조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방 작업을 하는 중에 새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이 새가 기지나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게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물이 자신의 몸 깃털이 젖지 않을 정도로 낮고, 흐름이 완만한 곳을 선호한다. 활주로 내 배수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시로 배수 관리를 하여 수서 곤충이나 어패류가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주로 주변에는 물이 고이는 습지를 없애거나 새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비단 노랑부리저어새뿐만 아니라 물을 선호하는 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월이 되면서 겨울을 천수만에서 보낸 노랑부리저어새들이 모두 북쪽으로 떠났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무인도에서 자유롭게 번식을 하고 올 가을 많은 무리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리고 꿈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천수만의 해미천을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 우스꽝스런 재미있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길 기다려 본다. 지난 겨울 탐조활동을 함께했던 초등학생 조카의 말이 생각난다. “내년에 저 새 보러 또 올게요. 이모부가 잘 살피 주세요.”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독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군인도 원한다! 눈부신 하얀 피부!

- 효과적인 화이트닝을 위한 3스텝 -

☞ 일병 정 인 | 32전대 방공통제부



잡티나 점 없이 뽀얗고 하얀 피부! 요즘 유행하는 그루밍(Grooming) 대열에 합류하여 피부 관리 좀 한다는 남자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피부 미백(美白)이 아닐까. 세계적으로도 미백에 관심 많은 민족이 한국인인데 덕분에 외국 유수의 화장품 회사들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화이트닝(Whitening) 신제품을 매년 봄 시즌마다 새롭게 발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후죽순 쏟아지는 신제품들 사이에서 아무리 써 봐도 실제 효과를 본 사람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항상 제자리일까?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한 기초 다지기가 필요하다.

* 1스텝 - 꼼꼼한 각질 관리와 클렌징을 잊지 마라

건강한 피부라면 피부 각질 주기(Turn over)가 28~30일 사이로 일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피부는 각질이 차곡차곡 쌓여 탈락되지 못하고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피부가 칙칙해지는 등 많은 피부 트러블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각질 때문에 피부 속까지 침투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꼼꼼한 각질 관리와 클렌징이 필요하다. 각질 관리란 탈락되지 못한 불필요한 각질을 화장품을 통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더욱 밝은



피부로 거둬내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다.

각질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은 화학 성분인 AHA(Alpha Hydroxy Acids)나 BHA(Beta Hydroxy Acids)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AHA¹⁾나 BHA²⁾가 함유된 제품은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AHA는 5%정도 함유된 제품 중에서 수소이온지수(PH)가 3~4인 것을 고르도록 하자. 제품 라벨에 %와 수소이온지수(PH)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화장품 판매원이나 해당 브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BHA는 1%정도 함유된 제품 중에서 수소이온지수(PH)는 AHA와 동일하다.

각질 관리 시 한 가지 유의점은 흑설탕이나 살구 씨, 비즈(beads)와 같은 알갱이가 포함된 스크럽(Scrub)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고 눈에 들어갈 우려³⁾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굳이 스크럽의 사용을 원한다면 클렌저에 소량 섞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미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싼 화이트닝 클렌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닝 클렌저에 첨가된 미백 성분은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할 만큼 함유량이 미비하므로 비싼 클렌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격이 저렴해도 좋으니 거품이 풍성하게 일고 말끔하게 씻기는 클렌저를 준비하자.

* 2스텝 - 똑똑한 미백 화장품을 찾아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화이트닝(Whitening) 화장품이 모두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미백 성분⁴⁾이 0.01% 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미백 화장품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식약청(KFDA)에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도 많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번거로움과 수고가 필요한데 미백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에 부착된 라벨을 정확히 따져가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전성분표시제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200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품 뒷면에 붙어있는 전성분표를 훑어 보자!

미백 성분이 전성분표 앞 쪽에 쓰여 있을수록 함유량이 높다는 뜻이며, 식약청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화장품인지도 눈 여겨 본다. 클렌저부터 스킨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감이 크므로 미백 성분이 고농도(2% 이상)로 함유된 에센스나 크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꾸준히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꾸준히'라는 기간은 대체 얼마큼일까? 아쉽게도 3~4개월 이상이다.



1) AHA 성분 : 글리콜릭산(Glycolic Acid), 락틱산(Lactic Acid)

2) BHA 성분 : 살리실산(Salicylic Acid)

3) 스크럽 사용 도중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로 행구어 내고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만나자.

4) 알부틴(Arbutin), 비타민C(Ascorbic Acid), 리놀릭산(Linoleic Acid), 닥나무 추출물, 감초 추출물



미백 화장품은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므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두 달 가량은 브라이트닝(Brightening) 효과로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중간 중간 화이트닝 마스크 팩의 부가적인 사용으로 하루가 다르게 환해지는 피부를 기대할 수 있다.

*** 3스텝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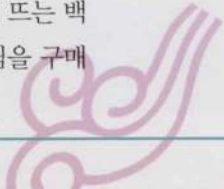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주요인은 바로 자외선(Ultraviolet Rays) 때문이다. 검게 그을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이기도 한 자외선 차단은 모든 스킨케어 중에 기본 상식이다. 자외선이 피부에 끼치는 막대한 데미지는 당신이 시작한 각질 관리나 클렌징, 미백 화장품의 효과를 모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므로 선크림(Sunblock)의 사용은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괜찮은 선크림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여름이 아니라면 SPF(Sun Protection Factor) 지수가 30을 넘을 필요가 없다.

적절한 선크림의 차단 지수는 SPF15~30(UVB 차단지수)에 PA++(UVA 차단지수)이다. 또한, 방수(Waterproof) 효과를 가진 선크림일지라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발라주어야 안심할 수 있다.

선크림은 유분감이 많아 번들거리기 쉽고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오일프리(Oil-Free) 선크림을 구매

하거나 바르기 전에 보습제(Moisturizer) 사용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외선으로부터 철저히 방어된 피부는 미백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름까지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사용하는 양도 중요한데 너무 적게 사용하면 피부 전체에 고르게 바르지 못하므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 손등에 짜놓고 피부 결 방향(코를 중심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대로 톡톡 두들겨 주듯 바른단. 지성 피부의 경우 T-존(이마와 코)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이므로 사용량을 조절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위 3스텝을 정석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이제 생활환경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하루 2L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 미백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음주를 자제하고 금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을 분비하여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켜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피부만 하얀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까지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㉞



필자 일별 정인은...

일본학을 전공했지만 일찍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화장품 전공 도서들을 보며 전문지식을 습득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장품 골라주는 남자'로 칼럼을 연재하다가 2006년 다음 아고라에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서명 운동'을 주도하여 '화장품 소비자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 후로 더욱 활발한 화장품 칼럼리스트 활동을 시작하며 수 백 개에 달하는 화장품 테스트, 리뷰어, 각종 브랜드 홍보 대사 등을 경험했다. 이를 계기로 유명 패션 매거진(Cindy THE Perky, '07년 02월호)에 '뷰티업계 막강 파워 4인'으로 선정되어 신홍 뷰티 칼럼리스트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로 호텔 면세점 명품 화장품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커리어를 쌓다가 공군에 입대하였다.

현재 30단 웹 매거진 '천리안'에 뷰티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대학원 화장품 과정과 국가공인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본 칼럼은 필자가 직접 습득하고 조사한 정보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간추려 작성하였다. 상업적인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구체적인 화장품의 언급은 지양했으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은 dotory70@af.mil(인트라넷), acneclub@naver.com(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라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이 자칫 소홀하기 쉬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흥미진진 합체변신 영단어

- 접두사 un-, 접미사 -able -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단어 타이틀매치>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blog.naver.com/midomiho

접두사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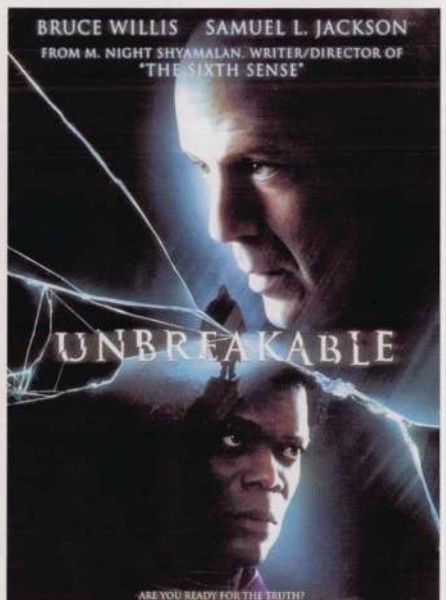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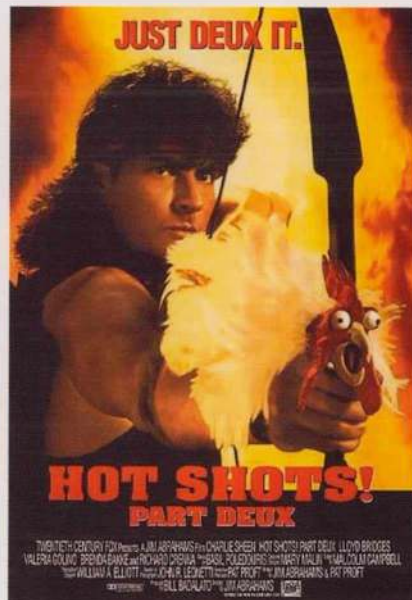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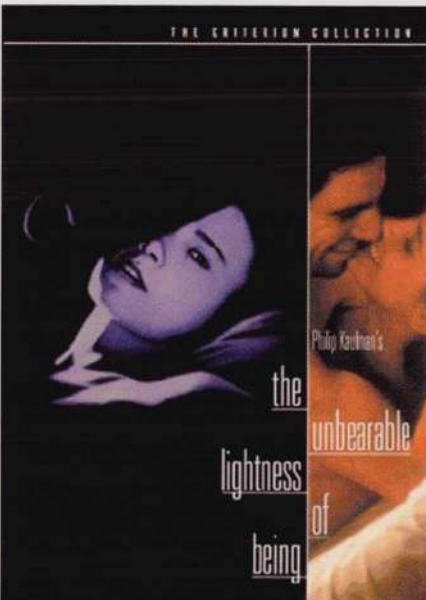
'참을 수 없는 람보의 가벼움'이란 영화 카피가 있었습니다. 찰리 신이 주연한 <못 말리는 람보>의 국내 광고카피인데요, 패러디 액션인 만큼 람보로 변신한 찰리 신의 캐릭터가 참 잘 드러나지요. 영어 제목은 'Hot Shots : Part Deux' 이고요, 일종의 코믹 난폭극亂暴劇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본어 발음으로 람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난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람보는 운명적으로 난폭한 영웅 캐릭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람보의 가벼움'은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원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영어제목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을 절묘하게 패러디한 홍보문구이지요. 영어로는 'The Unbearable Lightness of Rambo'로 표현됐을 텐데요, 미국 제작사에서도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프라하의 봄>은 프라하의 봄Prague Spring이 꽃 필 무렵, 옛 소련의 공산주의 치하에 놓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배경으로 예술인과 의사, 그리고 지식인들의 삶과 고뇌를 그린 영화이지요. 원작자 밀란 쿤데라는, 무릇 '존재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가득한데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삶밖에 살 수 없기 때문'Existence is full of unbearable lightness, because each of us has only one life' 이라고 설파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책



제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되어 하지 않을까요? 국내 개봉 때의 제목 '프라하의 봄'은 '참 아니다' 싶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를 뜻하는 un-

영화의 영어 제목을 'Unbearable'로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참을 수 없는' so bad or painful that you cannot stand it'의 뜻이니까 짧고, 기억하기 좋고, 강렬하고, 원작 소설 제목의 철학적 무게감도 좀 감추고, 영화의 메시지나 분위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일 테니까요. Unbearable의 bear는 '곰'이 아니고 '참다'지요. 그러므로 bearable은 '참을 수 있는'이고요. 접두사 un-은 'not' 또는 'to do the opposite of'를 의미해요. 영화 <사랑과 영혼(Ghost)>의 명곡 'Unchained Melody', 기억하시죠? 동사 unchain은 속박을 풀다, 해방하라는 뜻입니다.

접미사 -able

"어둠이 무서운가요? Are you afraid of the dark?"

이 표현이 제목으로 탄생한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Are You Afraid of the Dark?>입니다. 1994년에 나온 <Are You Afraid of the Dark?: The Tale of the Dream Girl>의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시리즈마다 결정적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Are You Afraid of the Dark? The Tale of the Dream Girl>에서 주인공은 여동생만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결정적 반전 부분에 이르러서 여동생은 죽은 오빠를 안내해 오빠의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지요.

<식스 센스>의 탄생 배경엔 TV 시리즈가 있었다.

이 시리즈는, 불세출의 걸작 <식스 센스(The Sixth Sense)>의 탄생에 기여한 작품입니다. '자고 냐더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있었다'는 이야기처럼, 세계적인 스타 감독의 대열에 오른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그 후 어마어마한 악몽에 시달렸을 게 분명합니다. <식스 센스>에 버금가는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식스 센스>의 기록은 깨질 수 없다고 판단한 건지, 흥미롭게도 <식스 센스>에 이은 그의 후속작품은 '깨뜨릴 수 없는'이라는 의미의 <언브레이크블(Unbreakable)>입니다.

샤말란 감독은 짧은 제목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가 만든 <해프닝(Happening)>, <빌리지(The Village)>, <사인(The Signs)> 등은 관사를 빼면 모두 한 단어이거든요. <언브레이크블>은 아예 한 개의 단어로만 된 제목이고요. 짧지만 느낌이 강렬하고 명확하지요.



깨질 수 없는 기록에 도전한 영화 <언브레이크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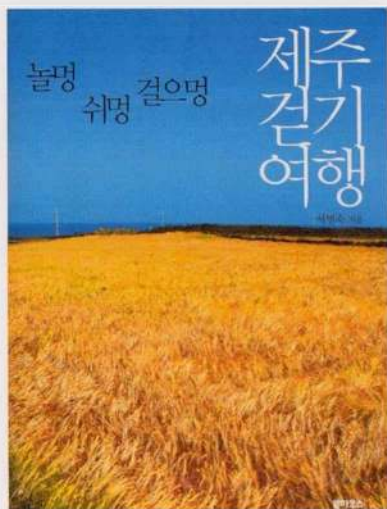
<언브레이크블>에서 주인공 데이비드 브루스 윌리스는 대형 열차 충돌사고(train crash)를 당한 뒤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객입니다. 그를 제외한 131명은 모두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데이비드는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식축구 경기장의 경비(security guard)인 주인공은 제목의 의미처럼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Unbreakable : not breakable : not easily broken' 초능력의 영웅(superhero)이지요. 정작 자신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런 그에게 희귀 만화책 수집가인 엘리야(사뮤엘 잭슨)가 접근합니다. 그의 별명은 Mr. Glass입니다. 특하면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희귀병을 갖고 있어서지요. 그런 그가 왜 데이비드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가려둡니다.

능력이 많은 접미사 -able

접미사 -able은 형용사를 만듭니다. 의미는 'able to be ___ed' 또는 'likely to ___'입니다. 예를 들어 an enjoyable party는 유쾌하고 즐거운 파티(a party that is able to be enjoyed)이지요. 또 다른 예로 a breakable object는 깨지기 쉬운 물체(an object that is likely to break)이지요. (A)

내안에 이르는 행복한 길을 찾아서

- 제주 걷기 여행(서명숙 저) -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서명숙. 제주도 '깡촌'에서 태어나 이름 있는 시사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까지 오른 잘나가던 여기자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23년의 기자 생활을 단칼에 때려치우고 배낭을 메고 스페인으로 떠난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도 보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 달이 넘는 긴 도보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마치 내림굿을 받은 무녀처럼 그 어떤 힘에 이끌려 고향 제주도의 오름(작은 산)과 숲과 해변을 헤매며 제주도의 옛길을 복원하고 개척하여 '제주올레'라는 이름의 순례길을 만든다.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비견할만한 바람과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올레(동네의 넓은 골목으로 연결되는 집 앞의 좁은 골목길을 의미하는 제주어)를 온 천하에 알리는 전도사가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사회적 성공을 일구었다고 보여지는 저자가 왜 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걷는 것에 미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분명 이런 일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녀는 기자로서 시퍼렇게 날이 선 필봉을 휘두르며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춘을 다 보냈지만 그 '길'에서 자신의 삶은 황폐해 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다. 그녀는 제대로 숨을 쉬고 살기 위해 빌딩을 벗어나 길로 나섰고 그 길 위에서 길을 물으며 인생의 진정한 길(道)을 발견한 듯 싶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길'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온 길과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참된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걷기. 참으로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걷기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영매이자 스승임을 일깨워준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대우주(大宇宙) 속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고(告)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인류의 문명도 그 시작은 직립보행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는 가장 뚜렷한 표징인 걷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 이 책의 저자는 물론, 그녀를 따라 올레를 걷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올레를 걸으며 행복해지고 위로를 얻고 내면적 갈등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제주의 푸르디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표정으로 올레를 걷고 있는 올레꾼들의 사진이 조화롭게 배열된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 순간 독자들도 남국(南國)의 올레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이 자신의 몸을 통과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 책의 부제는 놀며 쉬며 걸으며(‘놀며 쉬며 걸으며’의 제주 방언)이다. 그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나는 ‘놀며 쉬며 걷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업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자 인생의 절정에서 전격적으로 판국을 바꾸고 ‘인생의 봄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임을 보여주며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봄날을 살고 있는 저자의 담대하면서도 배짱넘치는 삶의 자세에서 많은 장병들이 교훈과 배움을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 ▣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생활밀착형 로맨틱 코미디
사랑한다면, 뮤지컬 <I LOVE YOU>

2005년, 인터파크 공연 예매 순위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뮤지컬이 있다. 뮤지컬 <I LOVE YOU>가 바로 그것! 4명의 배우가 60여 개의 캐릭터를 통해 20가지의 사랑이야기를 공연한다. 특히 일상 속의 살아있는 단편들을 통째로 뚝 떼어 바로 무대 위로 올려 놓은 듯한 리얼리티는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에게 큰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다. 불타오르는 첫 만남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권태로워지는 사랑의 감정,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사랑의 욕구 등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연인들에게 '사랑의 정식'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배우들은 각자 평균 15개의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서로의 동반자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관된 주제를 연기한다. 그렇다면 일상적이지만 우리를 닮은 이 뮤지컬을 통해 옆에 있는 연인에게 용기 내어 할 한 마디는?

밸런타인 데이도 화이트 데이도 없지만, 4월은 이 공연을 보기에 충분하다. 벚꽃보다 향기로운 당신의 이 한 마디만 있다면, I LOVE YOU.



기간 : 9월 13일까지
장소 : 서울 KT&G 상상아트홀
가격 : R 5만원 / S 3만 5천원
홈페이지 : www.musicalloveyou.co.kr

당신의 꿈을 이뤄줄 또 한 번의 레퍼토리
LISTEN~ 뮤지컬 <드림걸즈>

가로 2M, 세로 6M의 거대한 LED 패널 5개가 만드는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100억원의 제작규모에 맞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비운세가 준 영화 속 감동을 이제 무대 위에서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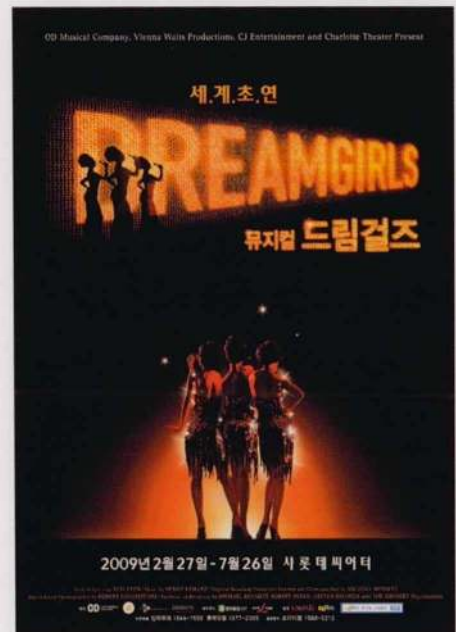
뮤지컬 <드림걸즈>는 무명의 가수가 스타가 되기까지 겪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그렸다. 물론 그 안에는 우정, 사랑, 배신, 불륜 등 인생의 여러 모습이 녹아있다.

그리고 이 생의 감동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브로드웨이를 이끌어 온 크리에이티브 팀이 대거 입국했다. 현지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드림걸즈> 초연으로 그래미 상 수상에 이어 영화 속 '리슨'을 작곡한 헨리 크리거 외에도 토니 상 등을 수상한 수많은 스태프들이 한국을 찾았다.

또 26명의 배우들이 400여 벌의 의상과 112개의 가발을 소화하는 것은 제작진이 관객들의 불거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오만석, 김승우, 홍지민의 캐스팅은 이 뮤지컬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만들었다.

원작곡가에 의해 듀엣으로 다시 편곡된 매직 넘버 '리슨' 만으로도 뮤지컬 <드림걸즈>는 당신을 봄의 절정에 데려다 줄 것이다.

기간 : 7월 26일까지
장소 : 서울 샤롯데씨어터
가격 : VIP 12만 / R 10만 / S 7만 / A 4만(주말엔 +1만원씩)
홈페이지 : www.musicaldreamgirls.co.kr



어느 휴게소에서 생긴 일

≡ 대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훈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로부터 딱 100일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 직장을 옮기시면서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때부터 나는 울산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울산에서 다녔다. 입대하기 전까지 25년을 한 지역에서 살았으니 내게는 울산이 그야말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는 형과 내가 떠난 울산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계룡대에서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울산으로 향하곤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법. 비록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렇게 금요일 일과를 마치고 울산으로 향하다 보면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께서 지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 번 들르지 않고 한숨에 내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년 전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울산으로 향했다. 늘 그렇듯이 부모님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쁜 마음과 한 주의 업무를 무사히 끝냈다는 시원한 마음에 경쾌하게 출발한 길이었지만 평소 시원스레 뚫려 있던 고속도로가 그날따라 심상치 않았다. 당시 계절은 봄이 한창일 때였고 전국이 오색찬란한 꽃들로 화려하게 물들어갈 때쯤이었는데 주 5일제를 맞아 금요일 오후부터 봄나들이를 나선 차량들이 고속도로



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몇몇 구간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고 울산으로 향하는 거리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어느새 시각은 저녁을 훌쩍 넘어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고 출발할 때의 기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깊어갈수록 슬슬 배도 고파오기 시작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울산에 도착해도 밤이 꽤나 깊어질 것 같았다. 늦은 시각에 공연스레 저녁식사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으신 어머니를 귀찮게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오랜만에 휴게소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차를 몰아 들어간 휴게소. 호두과자, 감자구이, 토스트 등 고속도로 휴게소만의 다양한 먹거리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망설이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먹을거리를 고르기 전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혼자 앉아 밥을 먹기 싫어하는 내 성격이었다. 그래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토스트와 음료수 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차안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랐다. 그렇게 구입해서 차로 향하는데 토스트를 판매했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험레벌떡 뛰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거스름돈을 잘못 건네주셨다는 것이다. 말씀인즉 토스트의 가격은 1,500원인데 내가 2,000원을 내고 거슬러 받은 500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토스트를 구입하면서 아주머니께서 주신 거스름돈이 당연히 맞겠거니 생각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말씀에 다시 꺼내어 보니 내가 거슬러 받은 것은 100원짜리 동전 4개와 50원짜리 동전 한 개였던 것이다. 즉 450원, 50원이 모자랐던 것이다. 아주머니의 손에는 50원짜리 동전 한 개가 들려 있었고 잘못 거슬러줘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내게 건네셨다. 내게는 거의 고모나 이모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거듭하여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는 길까지 조심해서 안전운전하라는 따뜻한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는 그곳은 사실 고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잠시 잠깐 쉬어가는 곳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게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고객들과의 만남만큼이나 많은 헤어짐 역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반복에 이제는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한 번 만난 고객을 다음에 다시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이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의 정을 느끼기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잠깐 들른 휴게소라면 더할 것이다.

그러나 겨우 50원. 어찌 보면 거슬러 받아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인 아주 작은 금액에 바쁜 자리를 버려두고 내게 달려오신 아주머니의 정성과 감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버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야말로 사람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그렇게 들렀던 휴게소를 등지고 남은 길을 달려 울산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지만 내려가는 길 내내 즐거울 수 있었다. 매년 봄나들이 차량들이 여기저기 도로에 줄을 서는 이맘 때가 되면 그 때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 혼자서도 웃음을 짓곤 한다. ㉮



2

造茶 조다

차 만들기

檄

造茶

新採揀去老葉及枝梗，碎屑，鍋廣二尺四寸，將
 茶一斤半焙之，候鍋極熱始下茶，急炒，火不可
 緩，待熱方退火，徹入篋中，輕團，加數遍，復下鍋
 中，漸減火焙，斃為度，中有玄微，難以言顯，火
 候均停，色香撲玄微未究，神味俱妙。

선조들이 전해 준 전통 차 만들기 茶神傳 2장 造茶

남 녁 땅 제주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봄기운이 남해바다 건너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천으로 오르면 지리산 정기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화개동 야생 차나무가 40~50리에 군락지를 이루어 차(茶)의 향기를 전하려 한다.

우리나라 다성(茶聖)이신 초의선사(草衣禪師)께서 다도(茶道)의 최고의 고전(古典)인 다신전을 처음 초록한 화개동은 겨울 눈 속에서 칙꽃이 피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며, 백설이 찾아올 땐에도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철 푸른색을 간직하고 있다.

입춘(立春)을 막 지나면 지리산 일대에서는 고로쇠(골리수)수액 속에 무기물이 많아 뼈를 이롭게 하는 물)수액을 채취한다. 이것은 나무들이 겨우내 기지개를 펴서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때가 되면 차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茶)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인간의 미약한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전통 조다(造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차를 덥을 때 사용하는 무쇠로 만든 가마솥을 깨끗이 청소하고 미리 예열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생산되는 차(茶)의 대부분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맞추어 공장에서 전자동 기계식 대량생산으로 변하고 있지만 산골 일부농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제다(製茶) 방법을 고집하며 감로차(甘露茶)를 만든다. ❶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차(茶) 만들기

1. 찻잎을 채취하여 묵은 잎, 줄기, 나무껍질, 부서진 잎 등을 선별하여 가마솥(2척4촌 = 1척 : 30cm, 1촌 : 3cm) 72cm 크기에 약 1kg 정도를 준비 한다.
2. 가마솥이 극열하면 찻잎을 넣고 빨리 뒤집 이 때 불의 온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 좋은 차(茶)를 만드는 지름길은 이 때 온도 결정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 돌이 많은 산중에 자란 것과 흙에서 자란 것은 땅속의 무기물이 다르므로 차나무 뿌리가 빨아들이는 성분의 차이와 찻잎 채취시기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 온도가 낮으면 찻잎이 익지 않고 높으면 찻잎이 탄다. 찻잎을 고온에서 뒤는 것은 찻잎 속의 80%의 수분을 없애고 약 20%의 무기물과 카테킨과 카페인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 빨리 뒤어야 다신(茶神 - 맛과 향과 색)을 얻을 수 있다.
3. 찻잎이 충분히 뒤어지면 명석에서 식히고 비비기 고온에서 익은 찻잎을 식히면서 차(茶) 우릴 때 성분이 잘 우려지도록 적당한 힘으로 문쳐지지 않도록 비빈다.
4. 건조하기
5. 가마솥 온도를 낮춘 후 다시 뒤기
차(茶)의 찬 성질을 충분히 없애고 수분을 건조 시키는 이 때 불조정이 차(茶)의 현묘함을 다 하기 어렵다.
6. 불 조정이 색과 향과 맛을 함께 갖추게 한다.
차(茶)가 좋은 것은 차를 마시고 효능이 좋아야 한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차(茶)를 우린 후 찻잎이 어린 새싹이고 찻잎을 건조시켜서 흰색이 나고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찻잎 채취시기가 가장 적당했고 정성을 다해 수제(手製) 차(茶)임을 알 수 있다.



눈 덮인 야생 차밭 모습



곡우(穀雨) 전 지리산 화개 야생 차밭



좋은 차(茶)의 필요조건, 온도



수분이 날아가는 모습



나른한 봄날에 활력을 주는 박쥐자세

Histapadasana

≡ 이희주 | 홍익요가협회 원장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가서 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의 절기로는 청명, 곡우가 있는데 그 중 양력 4월 20일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곡우 즈음에는 봄비가 자주 오는데, '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날이 따뜻해지고 가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날이 추워진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처럼 이 때 내리는 봄비는 겨우내 얼어붙고 메말라있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이제 갓 뿌려놓은 씨앗들을 움트게 하고 산천초목의 갈증을 풀어주고 새싹이 돋게하는 양식이 됩니다. 곡우라는 말 자체가 비 우(雨)자에 곡식 곡(穀)자가 합쳐진 말로 농사를 시작한 이 때 내리는 봄비는 모든 곡식농사가 잘 되도록 한다는 뜻이지요. 곡식뿐 아니라 산과 들의 나무도 겨우내 동면하듯이 뿌리쪽으로부터 저장해두었던 물이 점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곡우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만물이 깨어나고 물이 오르듯이 사람도 겨우내 부족했던 운동량을 늘려 몸을 깨워야 한해를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봄에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며 일하고 좀 늦게 자는 생활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야 막 솟아나는 대자연의 양기(陽氣)를 충분히 받아 건강에 더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봄에는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특히 간장과 쓸개의 기운

을 많이 쓰게 되어 이들 장부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겨우내 묵었던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 내야 함과 동시에 낮 시간이 점점 길어짐으로 해서 활동량이 많아지므로 누구든지 나른하고 피로를 느끼는 춘곤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졸음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입맛이 없고 목이 잘 쉬고 눈썹이 많이 끼거나 건조하게 느껴지고 평소와 비해 다리에 쥐도 잘 날 수 있지요. 특히나 요즘은 황사 현상이 심해져 봄이 되면 눈, 목, 코, 피부 알러지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우리 몸의 해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간장과 쓸개의 기운을 북돋아 면역성을 키워서 봄철의 나른함과 피로, 그리고 황사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스스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할 박쥐자세는 간장과 쓸개의 기능을 높여줄 뿐 아니라 골반의 유연성을 되살려 주어 골반장기(비뇨생식기)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골반을 주로 앞뒤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의 생활은 주로 책상과 의자, 소파 등 입식 위주로 바뀌어 골반부위의 관절을 사용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은 더욱 굳어져 이로 인해 허리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의 골반의 기능

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군장병들은 보초근무, 제식훈련, 행군 등 골반과 하체를 주로 앞뒤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므로 이 박쥐자세를 통하여 허리에서 골반, 골반에서 하체로 이어지는 기운의 음양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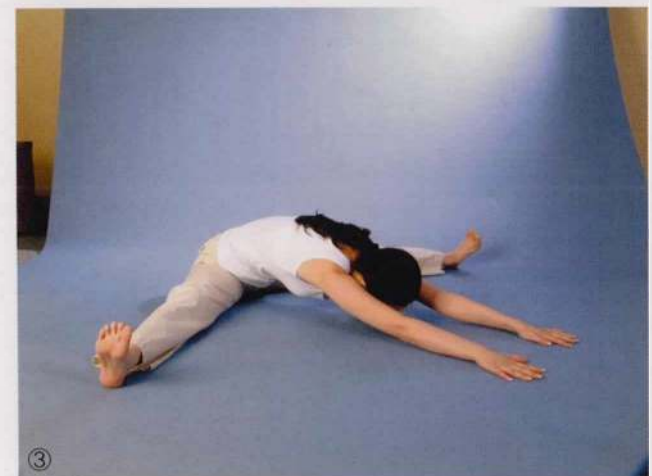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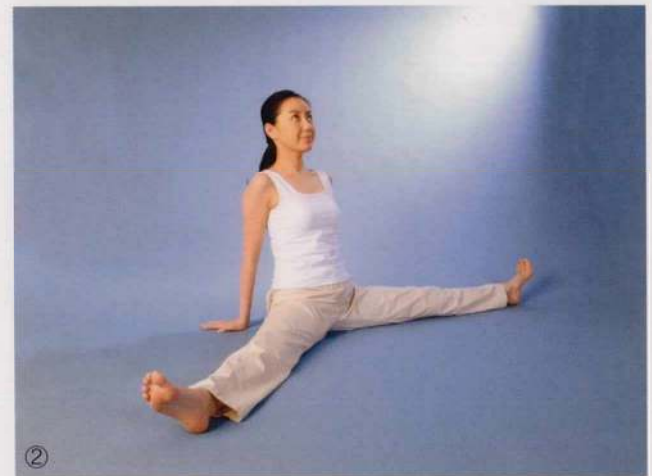
〈박쥐자세(Histapadasana)〉

◇ 방 법

1. 두 다리를 앞으로 똑바로 뻗어서 앉는다.
2. 두 손을 엉덩이 뒤 바닥에 짚고 두 발을 양옆으로 최대한 벌린다. 무릎과 발뒤꿈치를 눌러서 다리 뒷면 전체를 늘린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조금씩 더 벌린다.
3. 가능한 사람은 두 손을 앞쪽 바닥에 대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조금씩 숙인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다리를 더 벌리는 동시에 팔을 앞으로 뻗는다. 할 수 있는 만큼 버틴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 두 다리를 천천히 모아 1의 자세로 돌아온다.

◇ 효 과

1. 긴장과 쓸개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과 해독작용을 도와 피로회복에 좋다.
2. 골반부위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비뇨생식기 전반이 건강해진다.
3. 허리와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하체의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4. 허벅지 안쪽과 다리 뒤쪽의 근육의 탄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없앨 수 있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공군」5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

《Bird Alert》에서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뱀새의 글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즘 자연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해주셔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산뜻하게 잘 꾸며진 공군지를 좋아합니다. 아들 녀석이 공군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사나이가 봅니다.

- 김우진, 전남 장흥군 -

#2

《공군, 공군인》에서 다룬 '2008년도 창공의 MVP 탄생'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김일환 소령의 환철한 용모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 그리고 공군 조종사로서의 탁월한 능력에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 공군 예비역들을 찾아 꾸밈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군 예비역으로서 공군 창군 60주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재운, 전북 고창군 -

#3

《우리, 건강합시다》에 비튼 삼각자세가 가장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나이가 나이니 만큼 점점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던 시점에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입대를 많이 하던데 공군에 온 사람들의 현재 생활을 취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e-Sport, ACE) 기사는 사전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 밑이나 옆에 용어 설명을 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정현정, 대구 수성구 -

#4

저는 방공포대 헌병으로서 '비행단 헌병'들이 근무하는 모습과 생활이 궁금합니다. '24시간 밀착취재-헌병편'의 소재가 좋을 듯합니다. 《생각하는 그림》의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보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 상병 김학모, 충남 태안군 -

#5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을 즐겁게 읽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공군지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읽다보니 왜 진작 챙겨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호 《부대동정》에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합니다'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헌혈증서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헌혈을 해서, 한 달 뒤에 또 할 생각이랍니다.

- 오단비, 경남 밀양시 -

#6

《공군, 공군인》에서 다룬 '2008년도 창공의 MVP 탄생' 김일환 소령의 항수와 향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는 칼럼을 계속 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비행장에 안치된 이근석 동상 및 약력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교희, 대구 동구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4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4월 20일까지

1. 제2대 공군참모총장(당시 공군총참모장)을 역임했고 공군 창설 7인 중의 한 명으로 공군가를 집필·작사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은?
2. 1970년 9월 16일 국내에 도입된 미국 Grumman사에서 제작한 S-2A 해상초계기의 별명은?
3.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의 원작 소설가는 누구인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 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비마부대
2. 김대형 상사
3. 무명(Mumyung)

당첨자

전남 장흥군 김우진
전북 고창군 안재운
대구 수성구 정현정
충남 태안군 김학모
경남 밀양시 오단비
대구 동구 이교회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대한민국공군
창군 60주년
1949-2009